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VIP 리포트

■ 자영업자의 삶의 만족도 실태와 제고 방안

발행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주 원, 장후석, 백흥기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7
Tel (02)2072-6305 Fax (02)2072-6249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본부(02-2072-624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자영업자의 삶의 만족도 실태와 제고 방안

Executive Summary	i
1. 자영업자의 낮은 삶의 만족도	1
2. 자영업자의 삶의 만족도 실태 분석	3
3. 삶의 만족도 수준에 따른 자영업자의 특징	9
4. 시사점	11
【별첨】	13
【HRI 경제 통계】	15

< 요약 >

■ 자영업자의 낮은 삶의 만족도

취업자 4명 중 1명이 자영업자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삶의 만족도는 상용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전체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상용직 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의 삶의 만족도가 취약한 원인을 인구통계적, 경제적, 사회심리적 영향요인들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자영업자의 삶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 자영업자의 삶의 만족도 실태 및 특징

자영업자의 절대적(자영업자 집단내 비교) 및 상대적(상용직 근로자와의 비교) 만족도 수준을 토대로 만족도가 취약한 자영업자를 3개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중저소득 단순직형 자영업자'는 상용직 근로자보다는 타자영업자에 비해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이다.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낮으며, 주55시간 이상 과다 근로자, 60대 이상, 단순노무 및 기능원 등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볼 수 있으며, 생활 전반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고소득 전문가형 자영업자'는 절대적 만족도는 높은 편이지만, 상용직 근로자와의 만족도 차이가 큰 경우이다. 남성, 30대, 전문가, 소득4분위 집단으로 일과 소득에서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이지만, 자영업자로서의 자긍심 부족 또는 자영업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 등에 의해 상대적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셋째, '중저소득 판매서비스형 자영업자'는 만족도 수준도 낮고 상용직 근로자와의 만족도 차이도 큰 경우이다. 판매 및 서비스 종사자, 여성, 50대 등 취업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특히 이타심과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우울감이 높아 사회심리적 요인들이 취약한 경우가 해당된다.

위 결과를 종합하면 자영업자 만족도 제고는 절대적 만족도 수준을 높이기 위해 소득, 근로시간, 업종 등의 재조정과 함께 상대적 만족도 제고를 위한 사회심리적 요인의 향상 방안이 동시에 강구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시사점

자영업자의 소득수준 향상과 만족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향은, 첫째, 적극적인 **新자영업종의 개발** 및 자영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밀착형(동일 상권내) 멘토링 및 컨설팅 체계 구축**, 둘째, 전직지원 확대를 통한 자영업 탈피 유도과 **'특화된(customized) 전직지원서비스'** 등이다. 자영업자의 절대적, 상대적 만족도 수준과 관련이 큰 사회심리적 측면의 개선을 위한 방안은 첫째, 지역사회내 자영업자를 위한 **'상호부조형 공동체'** 지원, 둘째, 자영업자로서의 자긍심 제고를 위해 **'자영업'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개선과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 사업(예. '백년가게', 자영업 '지식인(마스터)' 사업 등) 추진 등이다.

1. 자영업자의 낮은 삶의 만족도

○ 취업자 4명 중 1명이 자영업자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삶의 만족도는 상용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전체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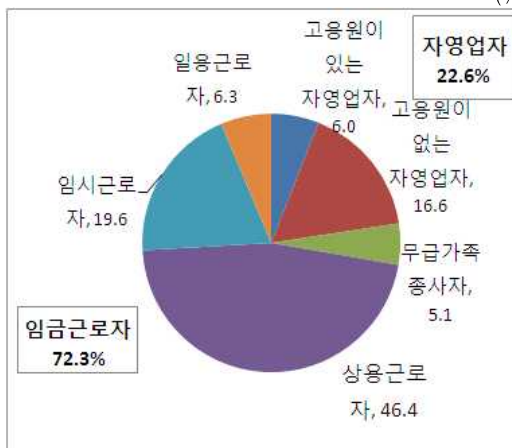
- 전체 취업자 4명 중 1명은 자영업자임

- 취업자(7월 현재 25,473천명)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6.0%를 차지하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6.6%로 전체 취업자의 22.6%(5,750천명)가 자영업자임
- 상용직 근로자는 이보다 많은 46.4%이며, 임시일용직 근로자(25.9%)를 포함한 임금 근로자는 취업자 중 72.3%임

- 자영업자의 삶의 만족도는 상용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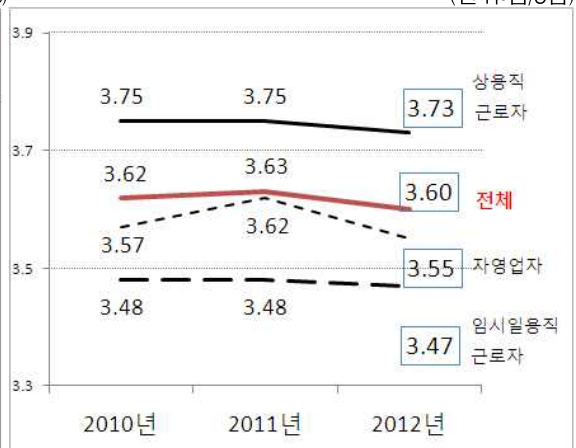
- 자영업자¹⁾의 삶의 만족도(3.55점)는 전체 평균(3.60점)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 상용직 근로자(3.73점)와는 큰 차이를 보임
-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73.9%가 '삶에 만족한다(매우 만족+대체로 만족)'는 의견으로 3명 중 2명은 삶에 만족하고 있는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58.8%만이 '삶에 만족한다'는 의견으로 절반 가량은 삶에 불만족하고 있음²⁾

< 고용형태(종사자지위)별 인구비중 > (단위:%)



자료: 통계청
주: 2013년 7월 현재
자영업자-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주-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고용형태별 삶의 만족도 비교 > (단위:점/5점)



자료: 한국복지패널 2010~2012년
주: 삶의 만족도 점수는 5점 척도(①매우 불만족 ②대체로 불만족 ③그저 그렇다 ④대체로 만족 ⑤ 매우 만족)의 평균값임. 전체 N=4,674, 자영업자 N=752, 상용직근로자 N=2,057

1)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 자영업자의 삶의 만족도별 응답률 ①매우 불만족(0.1%) ②대체로 불만족(5.5%) ③그저 그렇다(35.6%) ④대체로 만족(56.6%) ⑤ 매우 만족(2.0%), 상용직 근로자의 삶의 만족도별 응답률 ①매우 불만족(0.2%) ②대체로 불만족(2.4%) ③그저 그렇다(23.4%) ④대체로 만족(72.0%) ⑤ 매우 만족(1.9%)

- 자영업은 취업 취약계층의 대체 일자리로서 그 의미가 크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만족도 제고는 정책적인 관심이 필요한 사안임
 -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는 지속적으로 양적인 감소세³⁾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자영업자의 절대적 및 상대적 만족도 하락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임
 - 상대적으로 낮은 자영업자의 만족도는 자영업의 시장 구조적 측면⁴⁾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의 다양한 개인적, 경제적, 사회심리적인 요인들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있음
- 본고는 자영업자의 삶의 만족도가 상용직 근로자에 비해 취약한 원인을 살펴보고, 자영업자의 삶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함⁵⁾
- 자영업자와 상용직 근로자의 특징을 인구통계적, 경제적 및 사회심리적 측면에서 비교해보고, 각 요인별로 삶의 만족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함

< 삶의 만족도 영향 요인 >

	인구통계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심리적 요인
구성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력 · 연령 · 성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 근로시간 · 근속기간 · 직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타심 · 신뢰도 · 우울감 · 자아존중감

- 위 요인들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자영업자의 만족도 제고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함
 - 11가지 세부 요인들이 삶의 만족도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고, 이를 기준으로 자영업자 중 만족도가 취약한 집단을 도출해 봄
 - 끝으로 자영업자의 전반적인 만족도 제고 및 만족도 취약집단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들을 제시해 보고자함

3) 전년동월대비 자영업자 증가율은 2012년 1월 3.60%를 고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세이며, 지난 7월의 경우에는 -2.0%를 기록함

4) 구체적인 내용은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2013. 4. 12.) 『창조형 창업이 없다!-국내 창업의 7대 문제점』, 경제주평(2012. 7. 27.) 『자영업은 영업과 경쟁한다- 자영업자의 10대 문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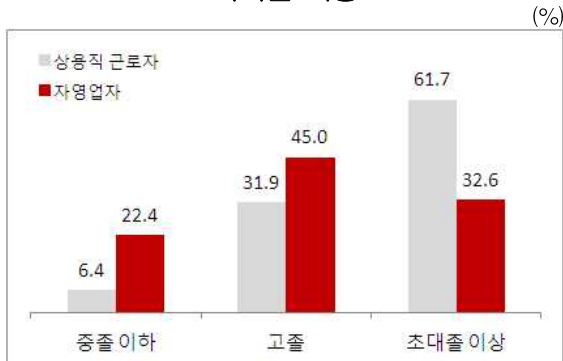
5)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상용직 근로자와의 비교적합성을 위해 일반가구 중 비농어업종사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한국복지패널(<http://www.koweps.re.kr>)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공동으로 복지현황 및 수요 파악을 위해 일반가구 및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매년 조사·발표하고 있음)

2. 자영업자의 삶의 만족도 실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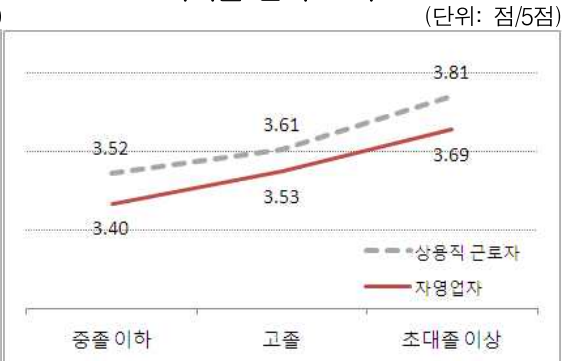
① 인구통계적 요인

- (학력)자영업자의 평균 학력수준이 낮으며, 상용직 근로자와의 만족도 차이가 모든 학력에서 유사해 학력차이가 만족도 차이를 야기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학력별 비중을 보면 자영업자는 고졸(45.0%), 상용직 근로자는 초대졸 이상(61.7%)이 가장 많아 자영업자의 평균 학력 수준이 낮은 편임
 - 하지만 학력에 상관없이 상용직 근로자와 일정한 수준의 만족도 차이를 보여, 두 집단의 학력 차이로 인해 만족도 차이가 나타난다고 볼 수 없음

< 학력별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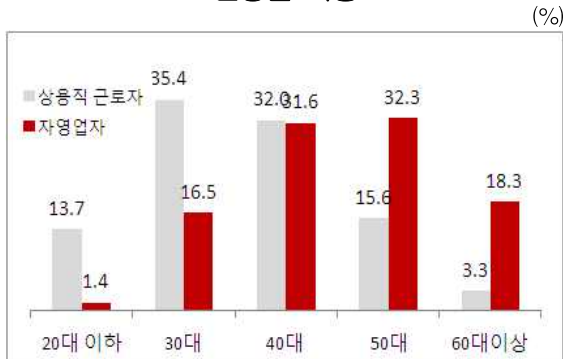
< 학력별 만족도 비교 >



자료: 한국복지패널(2012년)을 이용하였으며, 농업가구 제외함 (이하 모든 그래프는 동일 데이터를 이용하여 작성하였음)

- (연령)자영업자의 삶의 만족도는 연령과 뚜렷한 관련성이 없어 보이며, 40대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상용직 근로자와의 만족도 격차도 가장 적음
 - 자영업자의 경우 50대 이상 고연령층이 50%이상으로 많으나 저연령층과의 만족도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
 - 40대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수준이며 상용직 근로자와의 만족도 차이도 가장 적은 반면, 30대 및 50대는 상대적으로 만족도 차이가 커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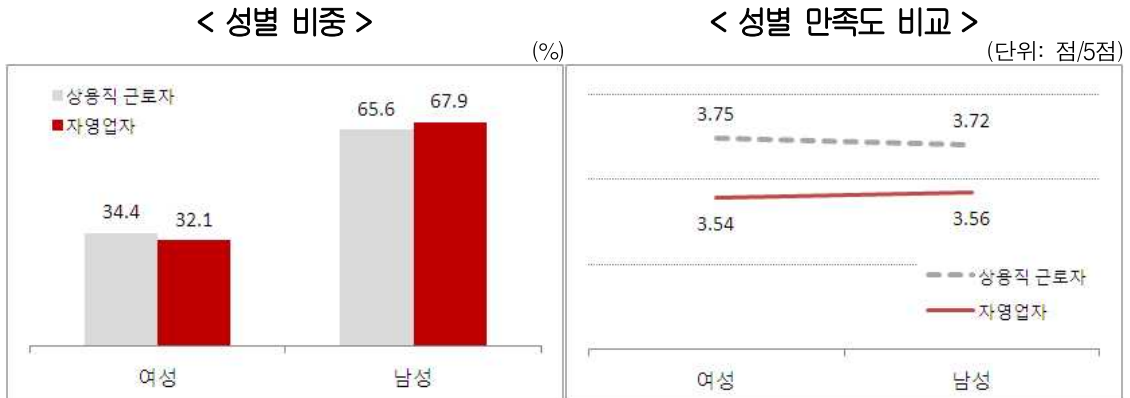
< 연령별 비중 >



< 연령별 만족도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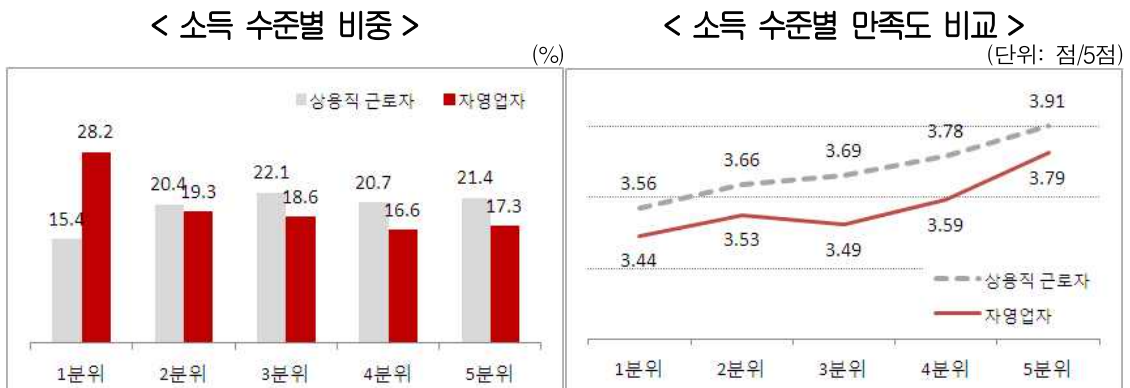


- (성별)여성 자영업자와 여성 상용직 근로자의 만족도 차이가 크게 나타남
 - 두 집단 모두 성별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는 크지 않으나, 자영업자는 남성보다 여성의 만족도가 약간 낮으며, 상용직 근로자는 반대로 여성의 만족도가 남성보다 높아 결과적으로 여성 자영업자의 여성 상용직 근로자와의 만족도 차이가 커지는 결과가 야기됨



② 경제적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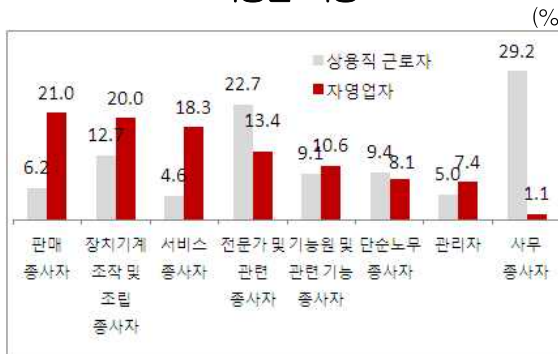
- (소득)자영업자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비중이 크며, 상용직 근로자와 '소득3분위'에서 만족도 격차가 가장 큼
 - 자영업자의 약 4명 중 1명은 소득 1분위에 속해 저소득층이 많으며, 평균 소득도 자영업자 3,541만원, 상용직 근로자 3,713만원으로 자영업자가 적음
 - 상용직 근로자에 비해 전체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낮으며, 특히 중간소득층(3, 4분위)에서의 만족도 차이가 고소득층(5분위) 및 저소득층(1분위)에 비해 크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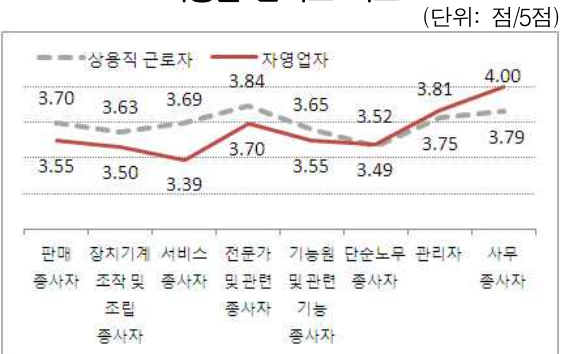
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며, 1분위 1,740만원 이하, 2분위 2,524만원 이하, 3분위 3,600만원 이하, 4분위 5,000만원 이하 5분위 5,000만원 초과임

- (직종)자영업자 중 서비스 종사자의 만족도가 최저이며 상용직 근로자와의 만족도 차이도 가장 크게 나타남
 - 자영업자 중 '서비스 종사자'의 만족도는 3.39점으로 가장 낮으며, '관리(3.81점) 및 전문직(3.70점) 종사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에서 상용직 근로자와의 만족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관리 및 사무 종사자'는 상용직 근로자보다 높은 수준임

< 직종별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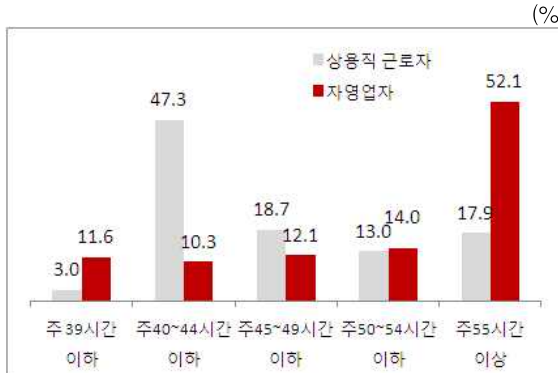
< 직종별 만족도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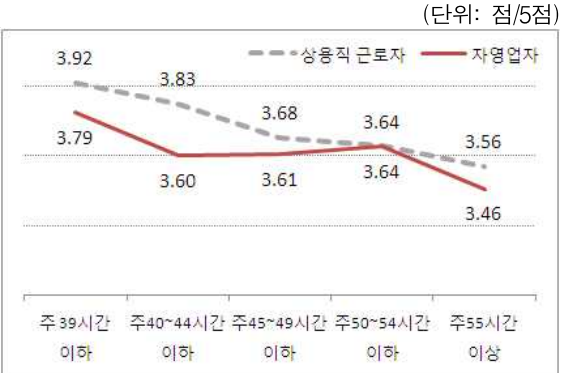
주: 자영업자 및 상용직 근로자 중 농업종사자, 군인을 제외한 직종별 비중임

- (근로시간)자영업자의 근로시간이 상용직 근로자에 비해 긴 편이며, 근로시간이 길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아짐
 - 자영업자 중 주55시간 이상 근로하는 사람이 52.1%로 많아 자영업자의 근로시간이 평균적으로 더 많음
 - 대체로 근로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만족도가 낮아지며, 상용직 근로자와 만족도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경우는 주40~44시간대임

< 근로시간별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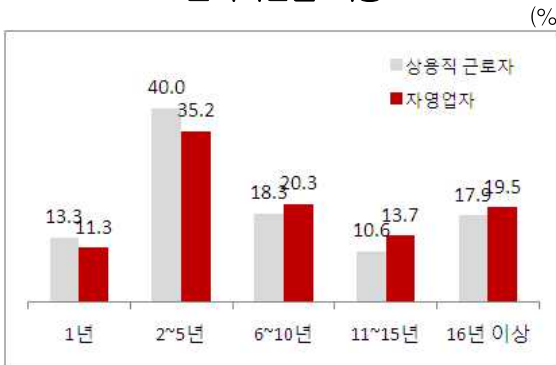
< 근로시간별 삶의 만족도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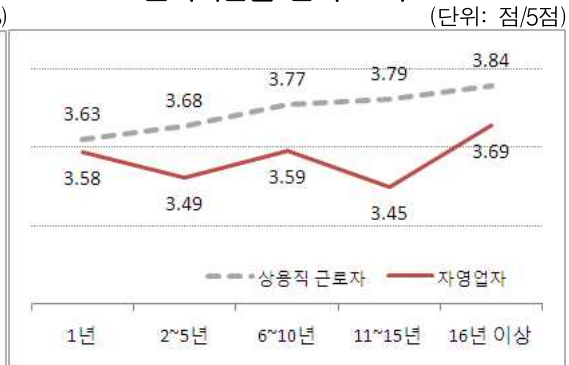
주: 규칙적으로 일한 경우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임

- (근속기간)상용직 근로자에 비해 장기(6년 이상)근속한 경우가 많으며, 자영업자의 경우 근속기간과 삶의 만족도간에 뚜렷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음
 - 상용직 근로자는 근속기간과 삶의 만족도가 비례하는 패턴을 보이나, 자영업자는 근속기간이 11~15년(3.45점)에서 가장 낮고 16년 이상(3.69점) 장기근속한 경우 만족도가 가장 높아 뚜렷한 관계를 보이지 않음
 - 상용직 근로자와의 만족도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경우는 근속기간 11~15년이며, 근속기간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유사한 수준임

< 근속기간별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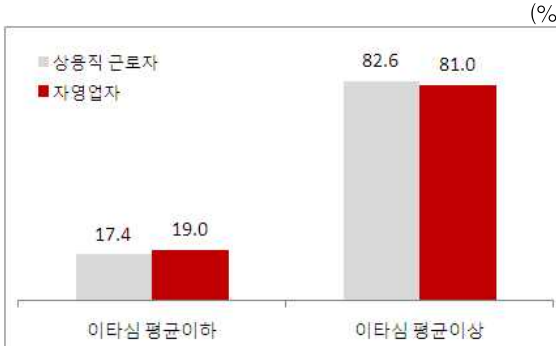
< 근속기간별 만족도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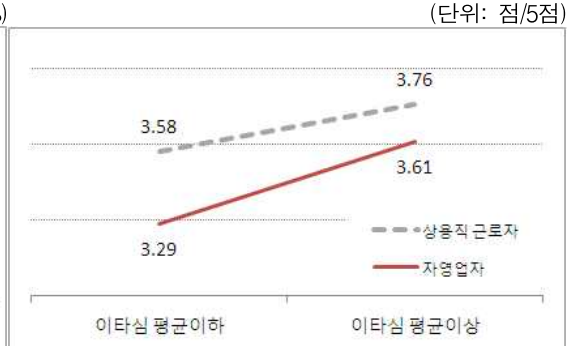
③ 사회심리적 요인

- (이타심)이타심 수준에 상관없이 자영업자의 만족도가 상용직 근로자에 비해 낮으며, 특히 이타심이 낮은 경우 삶의 만족도가 크게 낮아지고 있음
 - 상용직 근로자의 이타심이 다소 높은 편이며, 전반적으로 자영업자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자영업자 중 이타심이 낮은 경우의 만족도는 3.29점으로 상당히 취약한 수준이며 상용직 근로자와의 만족도 차이도 커지고 있음

< 이타심 수준별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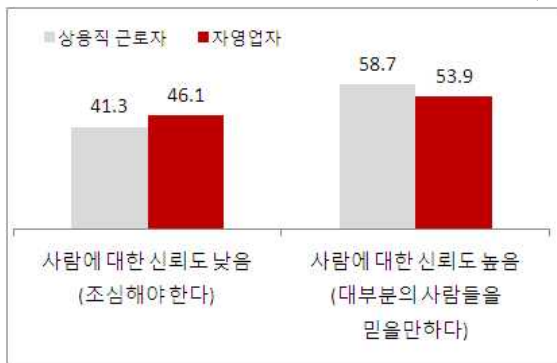
< 이타심 수준별 삶의 만족도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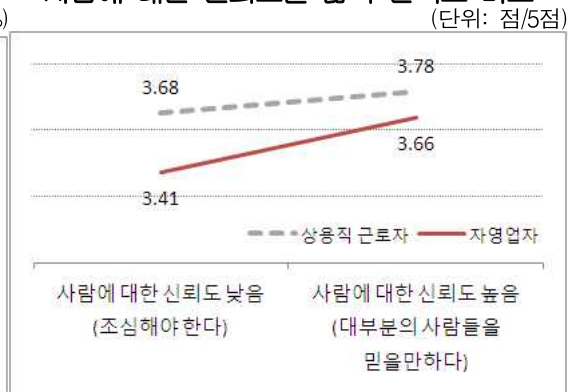
주: '귀하는 만약 지역사회 내에서 누군가 위급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기꺼이 도움을 줄 의향이 있습니까?'에 대한 5점 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대체로 그렇다 ⑤매우 그렇다)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집단화함

- (신뢰도)자영업자의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상용직 근로자에 비해 낮은 편이며, 신뢰도가 낮은 경우 상용직 근로자와의 삶의 만족도 차이가 증가함
 - 자영업자와 상용직 근로자간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 정도는 유사하나, 상용직 근로자보다 신뢰도에 따른 삶의 만족도에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남
 - 특히 신뢰도가 낮은 경우에 상용직 근로자와의 만족도 차이가 커짐

< 사람에 대한 신뢰도별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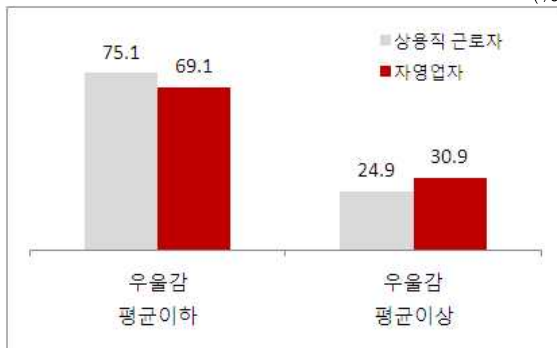
< 사람에 대한 신뢰도별 삶의 만족도 비교 >



주 '일반적으로 볼 때, 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믿을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①조심해야 한다 ②대부분의 사람들을 믿을 만하다는 응답 결과임

- (우울감)자영업자의 우울감이 상용직 근로자에 비해 높은 편이며, 우울감이 높은 경우 상대적 및 절대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크게 낮아짐
 - 자영업자 중 우울감이 평균이상인 경우가 30.9%로 3명 중 1명은 상대적으로 심각한 상황임
 - 우울감 수준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우울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우울감 정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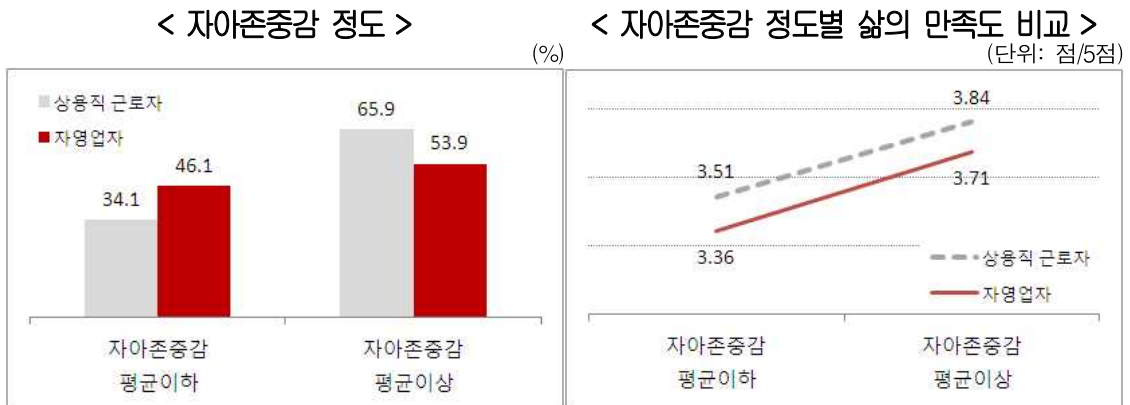


< 우울감 정도별 삶의 만족도 비교 >



주 자영업자 N=752 상용직 근로자 N=2057 총11문항(4점 척도, ①극히 드물다 ②가끔 있었다 ③종종 있었다 ④대부분 그랬다)으로 구성된 CESD-11 척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집단화함

- (자아존중감)자영업자의 자아존중감이 상용직 근로자보다 낮으며, 자아존중감 수준에 상관없이 상용직 근로자보다 자영업자의 만족도가 낮음
 - 자영업자 중 자아존중감이 평균 이하에 속하는 경우가 46.1%로 우울감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아존중감도 부정적임
 - 자아존중감 정도에 따라 삶의 만족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주 총 10문항(4점 척도, ①대체로 그렇지 않다 ②보통이다 ③대체로 그렇다 ④항상 그렇다)으로 구성된 로젠버그 Self-Esteem 척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집단화함

④ 실태 분석 종합

- 인구통계적 요인
 - 자영업자는 저학력, 고령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인구통계적 요인과 상용직 근로자와의 만족도 차이간에는 일관성있는 특징이 나타나지 않음
 - '여성'과 '50대'는 절대적 만족도도 낮고 상용직 근로자에 비해서도 취약함
- 경제적 요인
 - 자영업자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판매 및 서비스직 종사자, 과다(주 55시간 이상) 근로자 비중이 높은 편이나, 경제적 요인의 수준에 따른 상용직 근로자와의 만족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음
 - 상용직 근로자에 비해 '주40~44시간 근로자', '11~14년 근속자', '서비스 종사자'의 만족도가 취약함
- 사회심리적 요인
 - 상용직 근로자에 비해 이타심, 자아존중감 등 사회심리적 측면이 취약하며, 사회심리적 요인의 고저에 따라 삶의 만족도 및 상용직 근로자와의 만족도 차이도 크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음

3. 삶의 만족도 수준에 따른 자영업자의 특징

- 자영업자의 집단별 만족도를 크기순으로 살펴보면, '이타심', '우울감' 등 사회심리적 요인이 낮은 집단의 만족도가 취약하고 상용직 근로자와의 만족도 차이 역시 크게 나타나고 있음⁶⁾
 - 특히 '이타심이 평균 이하'인 자영업자의 만족도는 3.29점으로 상용직 근로자와의 만족도 차이도 0.29점으로 상대적으로 큰 편임
 - 반면 '관리자', '소득5분위', '주39시간 미만 근로자'는 절대적인 만족도 수준도 높고 상용직 근로자와의 상대적 만족도 차이도 크지 않음

- 자영업자의 절대적 만족도 수준과 상용직 근로자와의 만족도 차이(상대적 만족도)를 동시에 고려하여 자영업자를 4개로 구분할 수 있음
 - 가장 심각한 상황은 만족도 수준도 낮고 상용직 근로자와 만족도 차이도 큰 ①중저소득 판매서비스형 자영업자 그룹으로, 판매 및 서비스 종사자, 여성, 50대 등 취업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이타심과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우울감이 높아 사회심리적 요인들이 취약한 경우가 해당됨
 - ②중저소득 단순직형 자영업자 그룹은 절대적 만족도 수준이 낮으나 상용직 근로자와의 만족도 차이가 적은 경우로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낮으며, 주55시간 이상 과다 근로자, 60대 이상, 단순노무 및 기능원 등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으며, 생활 전반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음
 - ③고소득 전문가형 자영업자 그룹은 절대적 만족도 수준은 높은 편이나 상용직 근로자와의 만족도 차이가 큰 경우로, 남성, 30대, 전문가, 소득4분위 집단에 속해 일과 소득수준에서 대체로 안정적이며, 이들의 경우는 자영업자로서의 자긍심과 자영업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④고소득 사업가형 자영업자 그룹은 절대적 만족도 수준뿐만 아니라 상용직 근로자와의 만족도 차이도 크지 않거나 높아 만족도에 문제가 없는 경우로 관리자, 40대, 소득 5분위, 주45시간 이상 54시간 이하 근로자가 해당됨

6) [별첨 2] 참조

< 자영업자의 만족도 수준별 특징 >

		자영업자의 만족도 수준 ⁷⁾ (절대적 만족도)	
		低	高
상용직 근로자 와의 만족도 차이 ⁸⁾	小	(② 중저소득 단순직형 자영업자) ·인구통계: 소득1, 2분위, 고졸 이하, 60대이상 ·경제적: 주55시간 이상 근로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④ 고소득 사업가형 자영업자) ·인구통계: 소득5분위, 40대 ·경제적: 주39시간 미만 또는 주45~54시간 근로자, 관리자 ·사회심리적: 우울감 평균이하, 사람에 대한 높은 신뢰도, 대졸 이상, 자아존중감 평균이상
	大	(① 중저소득 판매서비스형 자영업자) ·인구통계: 소득3분위, 50대, 여성 ·경제적: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사회심리적: 사람에 대한 낮은 신뢰도, 이타심 평균이하, 우울감 평균이상, 자아존중감 평균이하	(③ 고소득 전문가형 자영업자) ·인구통계: 남성, 30대, 소득4분위 ·경제적: 주40~44시간 근로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회심리적: 이타심 평균이상

주: [별첨 2]를 참조하여 구성하였음

- 자영업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만족도 취약집단을 우선 고려하여 정책적 및 지역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가장 만족도가 취약한 '중저소득 판매서비스형 자영업자'는 자영업 밀집업종인 서비스 및 판매업에 해당되고 최근 창업열풍이 불고 있는 베이비부머를 대표하는 50대가 포함되어 있어, 자영업의 구조적 문제와 관련되어 있음
 - 또한 이타심, 우울감, 신뢰도, 자아존중감 등 사회심리적 요인들 모두 취약한 수준으로 이에 대한 정책적 및 사회적 개선 방안이 필요함
 - 덧붙여 자영업자의 상대적 만족도 제고는 자영업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병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됨

7) 자영업자의 삶의 만족도 평균값(3.55)을 기준으로 그 이상일 경우 高, 미만일 경우 低로 분류함

8) 상용직 근로자와의 만족도 차이의 중위값(0.13)을 기준으로 그 이상일 경우 高, 미만일 경우 低로 분류함

4. 시사점

○ 자영업자의 소득수준 향상과 만족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향

- 첫째, 자영업의 구조 개선을 위한 강력한 정책 마련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밀착형 멘토링 및 컨설팅 체계 구축
 - 자영업의 업종별, 지역별 집중도를 억제하는 강력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동시에 창조적 및 미래지향적인 자영업종의 개발을 위한 영역간 융합이 필요함
 - 자영업의 평균 경쟁력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역밀착형(동일 상권내) 멘토링 및 컨설팅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전직지원 확대를 통한 자영업 탈피 유도
 - 임금근로자로 취업 및 전직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만족도 개선에 가장 용이한 방법이 됨
 - 우선적으로 '취업성공패키지⁹⁾의 이용가능 대상자의 확대로 접근가능성을 넓힐 필요가 있음
 - 특히 자영업자를 타겟으로 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자연스럽게 자영업내 구조조정을 유도하도록 함
- 셋째, 자영업자 중 만족도 취약집단에 대한 개별화된 지원
 - 베이비부머를 대표하는 50대 자영업자에게는 현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뿐만 아니라 '특화된(customized) 전직지원서비스'를 개발하여 임금근로자로의 전직가능성을 높이는 방안도 필요함
 - 서비스직 자영업자는 일차적으로 저소득 및 과다 근로시간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서비스 자영업자들의 '연합화를 통한 영업, 마케팅의 공동화'를 추진하도록 함
 - 소득수준이 취약한 영세자영업자 대부분은 경제적 자본뿐만 아니라 인적 및 사회 자본에서도 취약해 지역 사회내에서의 공동체적 관심과 함께 지역단체를 통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9)취업성공패키지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교육부터 취업까지 지원하는 취업촉진 지원 서비스로, 2013년 1월부터 일정 조건의 영세자영업자도 지원 가능함.

○자영업자의 사회심리적 측면의 개선을 위한 방안

- 첫째, 지역사회내 자영업자를 위한 '상호부조형 공동체' 지원 확대
 -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 심리적 안전망을 형성하기 위해 지역사회내 자영업자 공동체의 역할을 활성화(지역별, 업종별 단체의 조직화 및 이에 대한 지원과 함께 구체적인 역할 부여)시켜 자영업자 스스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함

- 둘째, 자영업자로서의 자긍심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
 - 상용직 근로자에 대한 상대적 만족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자영업'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의식개선과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예. '백년가게' 만들기, 자영업자 '지식인(마스터)' 발굴 등)

고승연 연구위원 (yeon@hri.co.kr, 2072-6308)

[별첨 1]

< 자영업자 집단별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의 평균수준 >

		삶의 만족도 (점/5점)	소득 (만원)	주당 근로시간 (시간)	근속기간 (년)	이타심 (점/5점)	사람에 대한 신뢰도(0/1)	우울감 (최고44점)	자아 존중감 (최고40점)
학력	중졸 이하	3.40	2131.42	57.39	12.6	3.75	.48	14.29	30.68
	고졸	3.53	3609.49	57.02	8.7	3.90	.50	12.97	31.29
	초대졸 이상	3.69	4404.78	52.06	6.8	3.88	.63	12.62	32.57
성별	여성	3.54	2249.02	54.44	7.4	3.83	.50	13.95	31.66
	남성	3.56	4145.52	55.78	9.7	3.88	.56	12.77	31.51
연령	20대 이하	3.55	2344.45	39.50	2.2	4.09	.55	11.73	34.18
	30대	3.59	3970.29	54.47	3.3	3.77	.49	12.74	32.41
	40대	3.64	4178.81	55.79	6.7	3.94	.58	12.85	31.67
	50대	3.46	3602.88	56.27	10.5	3.89	.53	13.36	31.28
	60대 이상	3.52	2027.47	54.72	15.7	3.75	.52	13.83	30.89
소득 분위	1분위	3.44	996.75	51.11	8.3	3.77	.47	13.85	31.04
	2분위	3.53	2120.21	57.43	10.4	3.79	.56	13.17	31.49
	3분위	3.49	3129.67	56.88	8.4	3.89	.57	13.04	31.45
	4분위	3.59	4272.26	56.48	9.3	3.93	.55	12.59	31.84
	5분위	3.79	9013.27	57.49	8.9	4.01	.59	12.61	32.46
직종	관리자	3.81	4878.14	57.59	8.1	3.94	.68	12.54	32.42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70	3305.87	45.24	8.3	3.94	.59	12.79	32.33
	사무종사자	4.00	3673.75	47.67	5.2	3.89	.67	11.78	33.89
	서비스종사자	3.39	3241.84	64.95	6.5	3.71	.41	13.93	31.31
	판매종사자	3.55	3941.31	56.97	9.7	3.90	.54	13.52	31.55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3.55	4217.37	55.77	11.6	3.95	.63	13.50	31.49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조사자	3.50	3282.18	53.53	11.0	3.85	.54	12.53	31.00
	단순노무종사자	3.52	2059.32	48.77	6.3	3.84	.48	12.94	31.30

주: 소득은 연간 사업 또는 근로소득액임
 사람에 대한 신뢰도는 0-사람들을 조심해야 한다 1-대부분의 사람들을 믿을 만하다로 코딩되었음(1에 가까울수록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음)

[별첨 2]

< 자영업자의 집단별 삶의 만족도 비교 >

(단위: 점/5점)

순위	집단구분	상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GAP	순위	집단구분	상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GAP
1	이타심 평균이하	3.58	3.29	0.29	21	남성	3.72	3.56	0.17
2	우울감 평균이상	3.56	3.31	0.25	22	1년 근속자	3.63	3.58	0.05
3	자아존중감 평균이하	3.51	3.36	0.15	23	30대	3.78	3.59	0.20
4	서비스종사자	3.69	3.39	0.31	24	6~10년 근속자	3.77	3.59	0.18
5	중졸 이하	3.52	3.40	0.12	25	소득4분위	3.78	3.59	0.19
6	신뢰도 낮음	3.68	3.41	0.27	26	주40~44시간 근로자	3.83	3.60	0.22
7	소득1분위	3.56	3.44	0.12	27	주45~49시간 근로자	3.68	3.61	0.07
8	근속기간 11~15년	3.79	3.45	0.34	28	이타심 평균이상	3.76	3.61	0.15
9	주55시간 이상 근로자	3.56	3.46	0.10	29	40대	3.71	3.64	0.07
10	50대	3.67	3.46	0.21	30	주50~54시간 근로자	3.64	3.64	0.00
11	2~5년 근속자	3.68	3.49	0.20	31	우울감 평균이하	3.79	3.66	0.13
12	소득3분위	3.69	3.49	0.21	32	신뢰도 높음	3.78	3.66	0.12
13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조사자	3.63	3.50	0.13	33	16년 이상 근속자	3.84	3.69	0.15
14	단순노무종사자	3.49	3.52	-0.02	34	대졸 이상	3.81	3.69	0.13
15	60대 이상	3.62	3.52	0.10	35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84	3.70	0.15
16	고졸	3.61	3.53	0.09	36	자아존중감 평균이상	3.84	3.71	0.13
17	소득2분위	3.66	3.53	0.13	37	주 39시간 미만 근로자	3.92	3.79	0.13
18	여성	3.75	3.54	0.21	38	소득5분위	3.91	3.79	0.11
19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3.65	3.55	0.09	39	관리자	3.75	3.81	-0.06
20	판매종사자	3.70	3.55	0.15		-	-	-	-

주: 순위는 자영업자의 삶의 만족도를 기준으로 평균값이 낮은 순임
 GAP은 상용직 근로자 - 자영업자임
 *사무종사자(1.1%)와 20대 이하(1.4%)는 자영업자 중 비중이 낮아 분석에서 제외함

HRI 경제 통계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 국내 주요 경제 지표 추이 및 전망 >

구 분		2011 연간	2012					2013			
			1/4	2/4	3/4	4/4	연간	1/4	2/4	연간(E)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3.7	2.8	2.4	1.6	1.5	2.0	1.5	2.3	2.6	
	민간소비(%)	2.4	1.3	1.0	1.7	2.7	1.7	1.5	1.7	2.1	
	건설투자(%)	-4.7	-0.4	-3.1	-0.3	-4.2	-2.2	2.4	7.1	2.5	
	설비투자(%)	3.6	8.8	-3.5	-6.9	-5.2	-1.9	-11.9	-5.1	1.0	
대외거래	통관기준	경상수지(억 \$)	261	26	112	146	148	431	100	198	395
		무역수지(억 \$)	308	12	97	75	99	283	57	143	270
	수출(억 \$)	5,552	1,348	1,401	1,331	1,398	5,479	1,354	1,413	5,589	
		증감률(%)	(19.0)	(2.9)	(-1.7)	(-5.8)	(-0.4)	(-1.3)	(0.4)	(0.8)	(2.0)
	수입(억 \$)	5,244	1,337	1,304	1,257	1,298	5,196	1,297	1,269	5,319	
		증감률(%)	(23.3)	(7.8)	(-2.9)	(-6.9)	(-1.1)	(-0.9)	(-3.0)	(-2.7)	(2.4)
소비자물가 상승률(%)		4.0	3.0	2.4	1.6	1.7	2.2	1.4	1.1	1.6	
실업률(%)		3.4	3.8	3.3	3.0	2.8	3.2	3.6	3.1	3.3	
원/달러 환율(평균, 원)		1,108	1,131	1,152	1,133	1,090	1,127	1,085	1,123	1,105	

주: E(Expectation)는 전망치.